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범정부 지원 호소

황현 도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유치시 800억 경제효과·국위선양·새만금개발 영향”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호소했다.

황 의장은 이날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적인 아동대회로 5만 명이 넘는 세계스카우트 대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라며 “ICT 기술과 K팝 등 문화자원을 전 세계 청소년에게 알릴 기회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치대책과 시도의회장협의회, 그리고 타 시도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지구촌 최고의 아동축제인 세계잼버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국가 간 유치전이 치열하다”며 “2023년 개최지는 한국(새만금)과 폴란드(그단스크) 양국이 경합 중으로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1991년 강원도 고성 개최 이후 32년 만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새만금에 유치되면 800억원의 경제효과와 한민회를 통한 국위선양, SOC투자 및 투자유치 등 새만금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새만금은 최대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작년 8월 세계 연맹 현지 실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상태”라며 “그러나 경쟁국인 폴란드도 유럽 다수 국가의 지지와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어 새만금에 세계 잼버리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지난 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비서

관회의 당시 범정부차원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유치대책과 범국민적

참여 유도로 기필코 유치해 대한민국 브랜드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동연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김이수 채택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종합의견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또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김도을 자유한국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들의 의견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향후 일정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청문 과정을 지켜봤지만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 기류”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금 당장 서둘러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뉴시스

부안군-민주당 도당, 대선공약 이행 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회가 지난 9일 김중규 부안군수와 실·과·소장,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북도 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도당 관계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선공약과 관련된 지역 현안과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안군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과 연관된 변산 립(林) 어드벤처 팸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15개의 공약사업이 공약으로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국도 23호선(부안~흥덕) 확·포장 공사, 전북교직원수련원 신축 등에 대한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부안군이 요청한 주요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개발,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신항만~새만금홍보관), 새만금 기력선착장 확장개발, 국립 부안 수생정원 조성, 줄포만 갯벌복원사업, 부안 에코테이먼트 거점조성사업,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송성환,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섬진강댐 농업용수 확보 선제대응해야”

도·교육청·소속기관, 외주용역 직접고용·생활임금 적용도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와 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간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그 폐해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하루속히 정규직화하고 외주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 및 지원청, 각급 학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1,424명, 외주용역 노동자는 총 1,235명, 용역비는 224억으로 제출됐는데 용역인력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부분 최저시급인 6,47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 금액은 단순계산해서 1인당 연봉 1,813만 7,000원

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급 9,000원이 넘는 생활은 일지라 만들 수 있는 액수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 단순노무 231명 등 총 1,024명으로 추산됐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외주용역의 직접고용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도와 출연·위탁기관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등 세부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고, 외주용역의 경우는 60세 정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문제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외주 용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상황과 예산 및 인력 운용 탄력성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강병진 의원, 재개발사업 관련 물소유권 분쟁으로 공급 차질 우려

가뭇과 하천수 방류로 섬진강댐 농업용수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병진(김제2)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섬진강댐은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현재 호남평야 29,86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정읍과 김제, 부안 등에 농·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도의 주요한 수자원”임을 지적하며 농업용수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를 질의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904년부터 2000년까지 96년간 가뭇이 35회(0.36회/년) 발생한 반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10회(0.67회/년) 발생하여 가뭇발생 빈도가 급격한 증가 추세로 농업용수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병진 의원은 상황이 이렇더라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수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간에 물소유권 분쟁으로 전북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3월 6일 섬진강댐 전체 저수량이 42.8%(농업용수 저수량의 약 77.2%)에서 6월 5일 기준으로 전체 24.7%(농업용수 저수량 약 44.6%)로 저수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관 간 분쟁을 도가 권안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졌다”며 “기관 간 분쟁으로 전북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의 대응 전략과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가뭇임 심해지는 지금 선제적으로 가뭇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6,500만톤의 용수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기관 및 지역 간 갈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최재성 “당 지배구조 바꿔야... 이긴 후 해야 진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긴 후에 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그런데 이기고는 혁신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번이 본질적 정당혁신을 할 기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합류하지 않고 2선 후퇴를 선언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혁신의 본질을 “정당과 정치혁신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담은 강령으로 주류의 성격을 안배하고 구체적 제도를 명시한 당규로 지배구조를 뒷받침한다”며 “이것을 소수 정치엘리트와 세력에서 당원으로 바꾸면 거버넌스의 변화이고 본질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본질적 혁신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결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주류로 당원을 모시고 다수 당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당원이 늘고, 많은 당원이 있는 한 당이 소말하지 않으니 그것이 백년정당”이라며 “백년정당 백만권리당원 운동이 성공 가능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